

지역 소식 통

정읍시민 누구나 인공지능
스마트폰 교육 무료 제공

정읍시민 누구나 '인공지능(AI) 디지털배움터'를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과 스마트폰, 키오스크 활용법을 무료로 배울 수 있다.

'AI 디지털배움터'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케이티씨에스(KT ㄷ)가 수행하는 사업이다. 스마트폰과 무인 정보 단말기(키오스크) 사용법부터 생성형 인공지능 등 최신 정보 기술까지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는 실습 중심 교육을 제공한다.

교육 대상은 정보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과 정보 취약계층을 비롯해 정보 활용 능력을 높이고 싶은 정읍시민이다. 별도의 교육비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교육은 정읍시 정보화교육장에서 진행된다.

마을회관과 경로당, 복지관 등 시민들의 생활 공간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도 함께 운영해 접근성을 높였다.

교육 과정은 스마트폰 기초와 활용, 키오스크 이용, 정부 24 등 공공 누리집 활용, 휴대전화 금융,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누리소통망(SNS) 이용 등으로 구성됐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인공지능 디지털배움터 고객센터(1800-0096)를 통해 교육 일정과 장소를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치유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본격 추진

부안군농업기술센터는 치유농장과 사회서비스 유관기관을 연계한 2026년 치유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치유농업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심리·정서적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이다.

참여 농장은 아리울 승마장, 비올팜, 화동치유농장, 변산농장 등 총 4곳이며 치유 프로그램 체험의 사전·사후 치유성과 비교 분석으로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농업 현장 '주치의 역할' 특목

정읍 농업인상담소, 8개 권역서 병해충 진단·영농기술 지원 등 '현장 호응'

정읍시가 지난 3월 운영을 재개한 농업인상담소가 8개 권역서 병해충 진단과 영농기술 지원을 맡으며 농업현장의 '작물 주치의'로 자리 잡고 있다.

시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경력직 직원을 상담소에 우선 배치했다. 농업인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행정 창구에 머물지 않고 영농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농업기술센터'로 운영해 현장의 호응을 얻고 있다.

상담소는 농업기술 현장 지도와 함께 기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담당하던 농촌진흥 업무를 맡는다. 병해충 공동 방제와 채소·과수 검역 대상 병해충·돌발해충 방제, 식량작물 보급증 공급 등을 한곳에서 처리한다.

후계농업인과 청년창업농 지원사업, 각종 전문교육 신청도 접수한다. 농촌

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 4-H회 등을 읍·면 학습단체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과제·현장 교육도 추진하고 있다.

귀농·귀촌인과 청년창업농에게는 영농기술과 관련 사업을 안내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는다. 이를 통해 상담소는 농업기술 지원과 농촌인력 육성을 잇는 현장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상담소의 역할은 농작물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 더욱 두드러진다. 벼 이앙 후 저온 피해로 모가 뿌리를 내리는 시기가 늦어지거나 생리장해가 나타나면 현장을 찾아 원인을 진단하고 관리 방법을 안내한다.

고추 바이러스병을 진단하고 논콩 재배 확대에 필요한 종자를 알선하는 것도 상담소의 역할이다.

콩의 싹이 고르게 자라 잡도록 하는 초기 입모 관리와 잡초 방제 등 작목

별 현장 기술도 지원한다.

계절에 따른 농작물 피해 예방에도 나선다.

불철 가뭄에는 생육 이상과 병해충 발생 여부를 살피고, 장마철에는 배수 관리와 병해충 방제 기술을 지도해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 있다.

농업인상담소는 신대인읍·감곡면, 북면·정우면, 임안면·소성면, 고부면·영원면, 덕천면·이평면, 태인면·웅동면, 철보면·산내면·산외면, 동 지역 등 8개 권역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농업인상담소 운영 재개는 현장 농촌지도의 기능을 되살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 시는 농업인의 어려움을 가까운 곳에서 파악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현장 중심 지원을 통해 정읍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갈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군민소통·정책기획위원회 활동 마무리

민선9기 비전·공약 확정

고창군이 지난 14일 오후 민선9기 고창군 군민소통·정책기획위원회 마지막 회의를 열고, 한 달 간의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했다.

군민소통·정책기획위원회는 민선9기 군정의 비전과 공약을 군민과 지역사회의 소통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회는 정책기획, 농업해양, 문화관광, 사회복지, 공동체, 청년, 지방소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민간 전문가와 주민 대표 등 총 2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지난 6월부터 한 달간 활동을 이어왔다.

위원들은 발대식을 시작으로 민선 9기 비전과 군정목표 논의, 부서별 공약사업 검토, 최종 조정회의 등을 진행하며 주 2회에 걸쳐 총 9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다.

위원회는 이러한 논의와 조정 과정

을 거쳐 민선9기 슬로건을 "함께 여는 미래, 도약하는 고창"으로 확정했다.

"함께 여는 미래"에는 군민의 의견과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군민과 행정의 고창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간다는 뜻을 담았다. '도약하는 고창'에는 민선8기의 성과와 기반을 바탕으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어 고창의 대도약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를 위한 5대 군정목표로는 △농생명·식품 선도도시 △전력에너지 경제도시 △고품질 세계유산도시 △열린 교통 안전한 도시 △맑고 행복한 돌봄도시를 확정했다.

또한 선거공보와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정책, 군민 의견 등을 토대로 발굴한 119개 공약사업에 대해 유사·중복사업 통합, 사업내용 구체화, 소관 부서 및 위원회 의견 조정 등의 과정을 거쳐 5대 군정목표에 부합하는 80개 공약과제로 최종 확정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행안부 '마을기업 연합사업' 공모 선정

마을기업 '호암명상스테이·에코25시·다같이'와 협업 공동브랜드·판로 확대 추진

고창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마을기업 연합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사업비 1억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3개 마을기업이 참여했다. 마을별로 △호암명상스테이협동조합(명상·치유프로그램) △에코25시 영농조합법인(곤충 생태체험 콘텐츠 생태교육) △사회적협동조합 다같이(지역공동체 돌봄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 등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창군은 마을기업연합 공동브랜드 개발, 통합 홍보·마케팅, 공동 판로 개척, 상품 경쟁력 강화,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등을 추진한

다.

개별 마을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소득 증대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의 자연과 농업, 공동체 가치를 융합한 차별화된 지역상생모델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연합사업'은 동일 기초자치단체 내 3개 이상의 마을기업이 연합체를 구성해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상품 고도화, 판로 개척 등 협력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공모 선정은 지역 마을기업들이 경쟁이 아닌 협

력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마을기업이 지역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이끄는 사회적경제의 핵심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과 마을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 판로 지원, 역량 강화 교육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기반 조성에 힘쓰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자봉센터, '희망여름 착!착!착!' 나눔 활동

취약계층 110가구에 여름나기 물품 꾸러미 전달

부안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정흥귀)는 지난 14일 연중 기부문화 확산과 여름철 기후위기 속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6 우리부안 희망여름 착!착! 착! 나눔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착한가정, 착한가게, 착한일터, 착한책 등 다양한 기부 프로그램의 앞 글자를 모은 이름으로, 후원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저소득 이웃에게 '착착착' 전해지길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캠페인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한명규)의 지원으로 추진됐으며, 부안군자원봉사센터는 해당 지원금을 활용해 폭염에 취약한 조손가정과 한부모가정 등 총 110가구에 여름이불, 미숫가루, 모기약, 파스, 회충약 등 건강관리 용품과 간편식품 등으로 구성된 여름나기 물품 꾸러미를 전달했다.

정흥귀 센터장은 "부안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더 신선하고 고르게' ... 정읍 블루베리 경쟁력 올라간다

2억2000만원 투입... 블루베리 예냉기 6대·선별기15대 등 지원

정읍시가 2억 2000만원을 투입해 지원한 블루베리 예냉기와 선별기가 신선도 유지와 노동력 절감, 품질 균일화에 효과를 보이고 있다.

시는 최근 블루베리연구회를 대상으로 추진한 '소비자 인식향상 블루베리 고품질화 시범사업'의 현장 활용 실태를 점검했다. 사업을 통해 물을 주면서 비료를 함께 공급하는 관비 시설 12대와 선별기 15대, 예냉기 6대를 지

원했다.

관비 시설은 관수 작업과 비료 공급을 연계해 작업 효율을 높이는 데 활용되고 있다. 수확한 블루베리의 온도를 빠르게 낮추는 예냉기는 생과의 신선도와 품질 유지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올해 블루베리 고품질화와 안정적인 생산 기반 구축, 수확 후 신선도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품평회와 홍보 행사도 열어 생산부터 유통·홍보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뺄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